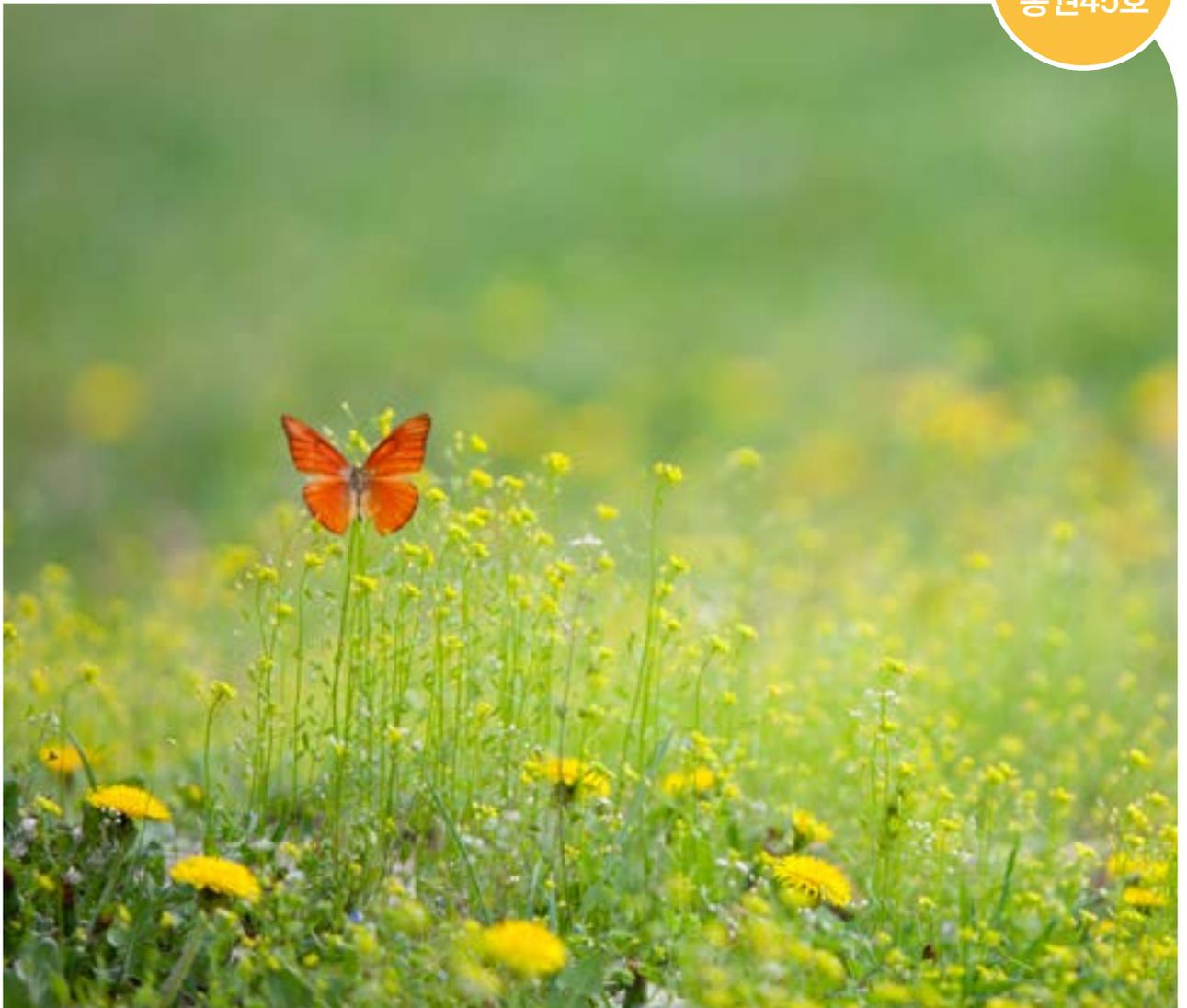


새생명찾아주기운동소식

# New Life & News

2021  
통권45호



사회복지법인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발적



두통



피로감



발열



오한



근육통



접종부위 부기·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전신 통증이나 발열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하세요.  
해열·진통제 복용에 제한은 없으나, 급격  
염증 제거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복용 바랍니다.

대부분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나,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만일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https://nip.kdca.go.kr/healthchecker>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하기  
<https://nip.kdca.go.kr/KVAERS>

## 심장질환 치료받으려 코로나도 뚫고 코스타리카에서 온 환자

#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과 대단히 만족해 행복”

-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호흡 곤란 호소...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시행 -



데니아씨(사진 가운데)와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강웅철 교수(가운데 오른쪽), 박일한 국제의료센터 코디네이터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장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수천km 떨어진 중남미 코스타리카에서 가천대 길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데니아 스미스 구티에레즈(74·Denia Smith Gutierrez)씨다. 데니아씨는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앓고 있었다. 코스타리카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며, 현지 의료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서는 의술이 뛰어난 다른 국가를 찾아야 했다.

딸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다. 한국행을 마음 먹은 그는, 평소 그의 딸이 치료를 받고 만족한 가천대 길병원에 치료를 문의했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숨이 차고, 협심증까지 동반된 상황이라 치료가 시급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 목적이라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의 치료를 위해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가 나섰다. 비자발급 과정에서부터 한국 도착 후 빠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테니아씨의 치료를 도왔던 박일한 국제의료센터 코디네이터는 “환자가 각종 검사를 위해 여러번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에 환자와 교감하며 필요한 치료에 대해 상의하고 검사, 수술 등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테니아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을 경유해 비행시간만 25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었다. 그는 코로나 검사 후 2주간 자가 격리한 후 최종 음성 확인을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3일 입원한 그는 6일 시술한 후 11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치료를 맡은 심장내과 강웅철 교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R·Transcatheter Aortic Valve Replacement)을 시행했다.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손상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시술이다.

강 교수는 “대동맥판막협착증은 과거에는 수술적 치료만 가능해 고령의 환자들의 치료에 부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TAVI/TAVR과 같은 시술로 고령의 환자들도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테니아씨의 경우 내과 질환과 척추협착, 협심증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된 상황이었어서 치료가 까다로웠지만 다행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테니아씨는 경과 관찰을 위해 딸과 함께 한국에 좀 더 머무른 뒤 3월 중순경 코스타리카로 귀국했다. 그는 해외 환자를 위한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의 우수한 시스템과, 의료진의 치료에 대단히 만족했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테니아씨는 “몸이 좋지 않아 여러 불편과 위험을 무릎쓰고 한국을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으로 건강을 되찾게 해준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과 국제의료센터에 감사해 눈물이 날 정도”라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사라져 자국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해외의 많은 환자들이 자유로이 이렇게 우수한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 이현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의 환자들이 치료를 문의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경우도 가천대 길병원 등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해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 국제의료센터는 2017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국내 첫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2019년에는 인천시 제1호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으로 인증받았다.



# 조혈모세포이식 부작용 20대 코로나19 환자 의료진 발빠른 대처로 완치...60일만에 퇴원

- 지병 치료로 면역억제제 치료 받던 중 확진...위기의 순간 항체치료제 긴급 투여 -  
- 의료진 판단력과 빠른 시스템으로 소중한 생명 살려 -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중 코로나 19에 확진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가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의 빠른 판단력과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 무사히 퇴원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A씨(21세)는 혈구탐색성 림프조직구증(HLL)이라는 희귀혈액질환으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첫 번째 이식에서 경과가 좋지 못해 10월 다시 이식을 받았지만 이식 거부반응으로 인해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A씨는, 올해 1월 귀국 후 자가격리 중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확진이 됐다. 지병으로 인한 치료도 필요한 상황에서 확진이 된 그는 1월 12일 인천지역 중증거점전담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 당시 CT 검사 결과 이미 폐렴이 시작된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했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그의 몸 상태와 맞물려 치료 경과가 좋지 않았다. 입원 후 한달이 지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도가 감소하지 않았고 폐렴은 계속 악화됐다.

인공호흡기를 다느냐, 마느냐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담당 교수인 감염내과 엄증식 교수가 마지막 수단으로 항체치료제 투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식약처가 승인한 항체치료제 투여 대상이 아니었다. 항체치료제 투여 조건 가운데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투여 등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체치료제가 성과를 보일 것으로 확신한 엄 교수는 2월 18일 식약처에 긴급승인을 요청했다. 환자를 살리고자하는 적극적인 병원의 요청에 식약처 또한

하루만에 긴급승인을 허락하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결과는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 어떠한 치료에도 꿈쩍 않던 바이러스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의 A씨의 폐렴도 점차 호전되고 열이 내렸다. 호흡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항체치료제를 투여한지 약 2주만인 3월 5일, A씨는 드디어 격리해제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12일 입원 60일 만에 무사히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다.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력과 빠른 승인을 위한 행정 시스템, 식약처의 적극적인 승인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담당 교수인 엄증식 교수가 항체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학술적 토대와 치료 경험을 쌓아 온 노하우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엄증식 교수는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 30일 이상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나 A씨의 경우 지병 치료의 영향으로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진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100세 초고령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치매, 당뇨,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중증의 코로나 환자를 완치시키는 등 우수한 치료 성과로 확진자 치료에 희망을 주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확진자 치료 병상을 제공하고 12월에는 중환자 병상 23병상을 포함해 144병상을 제공하는 등 중증환자 거점병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으로 대장 용종 잡는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대장내시경 시스템 개발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도 '닥터앤서' 프로젝트 일환 -
- 인공지능 활용해 의사도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용종도 잡아낸다 -
- 1월 18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현장 소통 일환 방문 -



2018년부터 3년간 수행한 사업에서 가천대 길병원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주)인피니트헬스케어, (주)피씨티와 파트너가 돼 내시경 영상 기반의 대장용종 분석 소프트웨어와 대장암 위험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1월 18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뉴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가천대 길병원 내시경실 현장을 방문해 '닥터앤서 대장내시경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최 장관은 “닥터앤서는 인공지능과 의료를 접목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강조하고 “국내외 환자 진료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사도 놓칠 수 있는 용종, 인공지능 닥터앤서가 실시간 검출

가천대 길병원이 개발한 대장암 닥터앤서의 핵심은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작은 용종도 실시간으로 발견해 알려주는 것이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의 진단 및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법이다. 그러나 의료진의 숙련도나 피로도, 충분한 시간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은 용종을 놓치는 경우도 16~26%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가천대 길병원이 (주)인피니트헬스케어와 함께 개발한 대장암 닥터앤서는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 해

당 내시경 영상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용종을 찾아준다. 의료진이 용종을 지나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용종 부위를 검출하여 저장한다.

또 추가적인 렌즈와 연동하면 인간의 눈보다 넓은 부위까지 관찰할 수 있어 내시경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내시경을 하는 의사를 돕는 진단 보조 의사인 셈이다.

닥터앤서의 용종 인식율은 97% 이상으로, 식약처 허가를 마치고 현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 중이다.

연구책임자인 박동균 가천대 길병원 헬스IT연구센터장(소화기내과)은 “한번 대장내시경을 받더라도 객관도와 정확도를 높여 용종과 암을 놓치거나 지나치는 일을 없애고, 이에 따라 환자가 겪게 될 의학적 위험성 증가,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 대장암 위험도, 쉽게 알 수는 없을까?  
설문참여만으로 예측 결과 기능 프로그램 개발**

가천대 길병원 닥터앤서는 대장암 위험도를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주)피씨티와 함께 개발했다. 기존 국내 환자들의 EMR(Endoscopic Mucosal Resection·내시경적점막절제술) 데이터 뿐 아니라 임상기록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추출하고, 임상외가 검토한 자료 등을 종합해 딥러닝 분석으로 대장암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대장내시경 또는 분변잠혈검사 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태블릿,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대장암(용종) 발병 위험도를 그 자리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

용해 환자의 성별, 키, 몸무게, 음식, 운동습관, 약물 복용력, 과거 병력, 유전적 특성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대장 용종 발병 위험도를 예측한다.

소화기내과 김경오 교수는 “대장내시경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검사일 수 있는데 환자 개개인 맞춤형 결과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내시경과 같은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고, 용종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은 “대장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자신의 대장암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정확하게 내시경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가천대 길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전문 기업들과 함께 만든 인공지능 의사 ‘닥터앤서’는 효과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닥터앤서의 제작 과정 및 실제 인공지능 내시경 진단 화면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인공지능 대장암 진단 시스템’ 영상은 유튜브 또는 네이버 ‘길병원TV’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유튜브 및 네이버에서 ‘닥터앤서’를 검색하세요.



## 인천도시가스 새생명운동 성금 기탁 1998년부터 23년째 이어져

- 임직원 및 가족들 성금 357만원 -



이상규 상무이사(좌) / 박준용 본부장(우)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혁)는 새생명찾아주기 운동본부(본부장 박준용)에 지역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임직원 및 가족들이 모금한 성금 357만원을 전달하였다.

1998년부터 23년째 이어져 온 성금 기증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나눔기운동을 펼쳐 온 새생명찾아주기운동과 함께 하기 위해 인천도시가스 임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성금을 기탁한 인천도시가스 이상규 경영지원

담당 상무는 “치유 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처받고 소외당한 이웃들이 새생명찾아주기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한편 인천도시가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익기업으로서 새생명찾아주기운동 후원 외에도 사랑의 연탄나눔, 희망장학생 후원, 독거노인 무료급식 후원 등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신한은행, 새생명운동 성금 기탁



김동일 단장(좌) / 박준용 본부장(우)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는 신한은행 구월동금융센터(지역단장 김동일)로부터 지역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의 성금을 전달받았다. 새생명찾아주기운동은 사회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한 사랑나눔기운동으로 소외의 그늘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과 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써, 성금 전액은 어려운 환자들의 수술비에 사용된다.

성금을 기탁한 신한은행 김동일 지역단장은 『치유 가능

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처받고 소외당한 이웃들이 새생명찾아주기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성금 기탁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총재 이길여)은 지난 19일 단원들이 모금한 성금 등을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초, 중, 고, 대학생들로 이뤄진 봉사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은 매년 일일찾집을 운영해 성금을 모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을 통해 성금을 모금했다.

단원들은 용돈을 절약해 총 70만1000원을 모았다. 또 초록우산 주최 감사 편지쓰기 대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산곡남중학교 성지후 학생이 장학금 전액을 성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은 19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학생들의 정성을 전달했다.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1993년부터 매년 꾸준하게 사랑의 연탄 나눔, 희망빵 제공, 재가 장애인 선물전달, 행복한 김장 나눔 사업 등을 실천하고 있는 비영리청소년단체다.



류원기 사무국장(좌) / 가천부모회 26기 공은영 회장(우)



청소년대 27기 산곡남중학교 성지후 군(좌)

## 새생명운동본부 정기이사회 개최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이사장.이길여)는 3월23일 비대면 모바일 이사회를 열어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가결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백신접종이 시작 되었지만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정부 지침대로 비대면 모바일 이사회를 실시하였다. 이태훈 길병원의료원장, 김정치 인천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임남재 전 인천적십자사회장, 이창운 인천YMCA 상임이사, 조윤구 전 해오른병원장, 김재일 우림학원 이사, 안승묵 세원상협 회장, 안병문 성민병원장, 이기우 전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 김득린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정영복 감사가 참석했다.

회원님들의 정성으로  
진료지원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타명시된남성생식기관염증장애

임O빈 / 급여1



상세불명의당뇨병

권O원 / 급여1



취장의제자리암

주O혜 / 건보



우측대퇴골경부골절

장O하 / 건보



상세불명의백내장

홍O기 / 급여1



기타명시된남성생식기관염증장애

박O길 / 건보



케타산증등반한상세불명의백내장

강O왕 / 급여1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박O원 / 급여1



손목터널증후군,양측주관중후군

편O빈 / 급여1



상세불명의 심부전

방O순 / 급여1



두피의 열린상처

김O원 / 건보



기타인공삽입장치감염 및 염증반응

오O현 / 급여1



외상성경막하출혈

박O현 / 차상위



하행결장의악성신생물

정O국 / 급여1



악성신생물,여성골반복막암착

안O미 / 급여1



요관결석을동반한신장결석

공O원 / 급여1



직장의악성신생물

황O수 / 급여1



장의천공(비외상성)

정O준 / 급여1



기타합병증을동반한 전립선종양

양O석 / 급여1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김O수 / 급여1



양안중식성 당뇨망막병증

박O원 / 급여1



담관염,흉추의골절

배O필 / 급여1



다발성합병증을동반한 당뇨병

송O선 / 급여1



좌측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김O분 / 급여1



상세불명의자궁경부의이형성

김O숙 / 급여1



비골골절을동반한경골하단의골절

권O재 / 건보



좌측대퇴골골반부분골절

이O일 / 급여1



지주막하출혈

엄O아 / 건보



양안백내장

서O석 / 건보



상세불명의만성신장병

김O환 / 급여1



척추협착

최O례 / 급여1



**급성담낭염을동반한 담낭의결석**  
김O봉 / 급여1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이O화 / 건보 

**외상성경막하출혈**  
양O근 / 급여1 

**상세불명의병적비만**  
차O영 / 급여1 

**비골골절을동반한 경골몸통의골절**  
김O대 / 급여1 

**상세불명의원발성개방우각녹내장**  
김O한 / 건보 

**방광의악성신생물**  
양O섭 / 급여1 

**사지의상세불명의후천변형**  
최O일 / 급여1 

**우측슬관절 외측 무릎관절증**  
김O완 / 급여1 

**제5-6및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빙O용 / 급여1 

**당뇨병성망막증, 녹내장**  
서O현 / 급여1 

**대퇴골경부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  
이O석 / 급여1 

**상세불명의위의악성신생물**  
윤O원 / 급여1 

**편위된비중격**  
고O문 / 급여1 

**상세불명의백내장**  
명O연 / 급여1 

**좌대퇴골전자하부골절**  
배O희 / 급여1 

**상세불명의심부전**  
박O범 / 급여1 

**하지의 심부혈관의 정맥염**  
유O근 / 급여1 

**방광장루**  
김O수 / 건보 

**천공이있는 상세불명의위궤양**  
이O철 / 건보 

**상세불명의비류마티스성승모판장애**  
김O임 / 차상위 

**심장성소크, 대동맥박리**  
강O경 / 급여1 

**외반무지(후천성)**  
곽O자 / 급여1 

**소장의손상**  
김O락 / 급여1 

**국소복막염을동반한 급성충수염**  
박O자 / 급여1 

**장의찬공(비외상성)**  
장O자 / 급여1 

**폐의악성신생물, 요추의골절**  
최O선 / 급여1 

**편위된비중격**  
김O희 / 급여1 

**국소복막염을동반한급성충수염**  
오O호 / 급여1 

**좌안망막열공이있는 망막박리**  
박O식 / 건보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조O남 / 급여1 

**신장및신장주위농양**  
장O순 / 급여1 

**우대퇴골 전자하골절**  
오O용 / 급여1 

**기타 자발성기흉**  
이O수 / 급여1 

**당뇨병성족부궤양**  
노O환 / 급여1 

**용관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  
황O숙 / 급여1 

**양안백내장**  
마O부 / 급여1 

**만성신장병**  
정O애 / 급여1 

**전십자인대의파열**  
구O영 / 급여1 

**간외담관의 악성신생물**  
김O영 / 건보 

**절구의골절**  
정O근 / 급여1 

**좌측 척골주두개방성분쇄골절**  
이O화 / 건보 

# 새생명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

[오OO, 46세]

오OO님은 본래 평안도에서 거주하다 1년 전 탈북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입니다. 북한에서 거주할 시 결혼 후 슬하 1남을 두었으나 홀로 탈북 하였고 한국에서는 1인가구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탈북 후에는 6개월간 정부지원금 받아 생활 해왔으며 이후 시장, 어판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로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 있어 지난해 11월 실직하였고 이후 근로하지 못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배달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 시도 하였으나 본래 협심증 있어 신체적 무리,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근로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달대행업체 아르바이트로 근로 시도하였고 입원 당일, 오토바이 운전으로 이동 하던 중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하지 통증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 하였으며 전자하골절 진단 받고 정형외과 입원하여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중에도 비용 마련을 위해 배달대행 업체에 보험 처리 가능 여부 확인 하는 등 노력 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환자 본인 과실 비중이 높음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 보험처리 등 보상 방안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알게된 몇 명 되지 않는 새터민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는 어려움 있어 도움 받지 못하였고, 입원 중 사회사업팀에 대해 듣고 비용 지원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는 환자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지원 대상으로 추천 하였으며, 본부에서 환자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결정하여 무사히 퇴원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사고 후 한국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지체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감, 걱정 등 심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알게 되었고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를 통해 큰 수술비를 지원 받게 되어 어려운 이들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놀라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해왔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넘어 환자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본부의 귀한 사업에 감사드립니다.

[김OO, 52세]

사회사업팀에서 상담을 한 환자에게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내 부인이 암에 걸렸대요. 나는 위암인데, 부인은 유방암이라뇨... 너무 절망스럽고 무서워요. 아들 하나인데 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수입도 적은데, 우리들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만으로 미안한데 치료비까지 감당하게 한다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랑, 부인, 아들 이렇게 3명이 지내고 있는데 월세 주택이에요. 작은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해왔는데... 제 부인까지 병에 걸리니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부인의 치료비 도움을 요청 하였다. 환자가정은 3인으로 아들이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수급자도 신청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었다. 이에 환자 부인과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상담을 하였고, 다행히 공공 기관

에서 치료비 도움을 드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입원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치료비는 가중되었고 추가로 치료비를 알아봐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도움을 줄만한 민간기관이 없었고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답변뿐이었다. 치료비가 발생하여 타 자원을 모색하였으며 절박한 상황일 때에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지원을 의뢰드려 도움이 결정되었다. 결국 환자의 부인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수술 후 나머지 치료까지 모두 받고 퇴원을 할 수 있었다. 감사한 마음에 환자와 부인이 한결음에 찾아와 “새생명찾아주기 운동본부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많이 감사했는데... 제가 지금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더 힘내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꼭 저도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일 많이 하면 살겠습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 신규후원회원

강웅철	강지혜	경민구	경선영	고영인	고유리	고은정	고은지	곽수욱	곽은하
곽주현	곽혜선	권광안	김경희	김기동	김길수	김나래	김동식	김명옥	김미정
김민영	김보미	김봉관	김선주	김성미	김소윤	김수빈	김슬기	김아름	김연수
김연정	김용주	김용희	김우경	김유진	김윤재	김은영	김은혜	김의겸	김자영
김재현	김정인	김정호	김종훈	김지해	김지훈	김진경	김진선	김진아	김채림
김태옥	김태윤	김현중	김혜진	김희주	나은선	나지연	내성은	노유경	문종흠
문현진	박누리	박성태	박성희	박신영	박유진	박은선	박은호	박재금	박주완
박지현	박진아	박창선	박현숙	박현아	배진형	백소연	변애자	서동범	서옥경
성유진	손영미	송승호	송은정	송치현	송혜민	신가현	심경미	심소담	심채영
양지은	엄미예	여선민	우정은	유수경	유지은	이경록	이공명	이규찬	이덕천
이막달	이미희	이보영	이상미	이상운	이상임	이석호	이세미	이송미	이슬기
이신우	이신혜	이애리	이영선	이윤희	이은영	이은재	이임례	이재상	이주민
이주희	이현구	이혜영	이환석	이효진	이흥주	인성후	인효진	임영옥	임정은
임효순	장 미	장수영	전은영	전효석	정다우리	정미정	정석훈	정욱진	정지혜
정 한	정현주	조미진	조민정	조상임	조수제	주득남	주은미	진태은	차민경
최여진	최연정	최영호	최윤정	최은희	최정은	최정희	최진영	최창후	최치영
최혜영	한계정	한미희	한성진	한은정	한지형	한태정	허윤영	현선영	홍성숙
홍진숙	황경훈	황진주	황혜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당신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는 신한카드와 공동으로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신한카드의 적립 포인트를 기부하면서 나눔과 베품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아름인 홈페이지(www.arumin.co.kr)접속 → 기부하기 → 자선 →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클릭하시면 기부가 가능합니다. 포인트를 기부하면서 연말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CMS안내**  
 은행에 가지 않고 성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은행,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2020.1.1.-2020.12.31.

(단위 : 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비고
후원금	75,891,271	환자수술비	68,577,050	
이월금	4,920,436	사업이월금	12,234,657	
<b>계</b>	<b>80,811,707</b>	<b>계</b>	<b>80,811,707</b>	



# 뇌전증, 주신경자극기로 극복 가능 기존 수술에 비해 부작용 적고 효과 우수

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 박광우 교수

## 뇌전증 치료에 미주신경자극기 효과적

뇌전증은 전해질 불균형, 알코올 금단현상과 같은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뇌전증 발작이 24시간 이내 2번 이상 발생할 때 진단된다. 뇌전증은 약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후두엽(대뇌 반구의 맨 뒷부분) 혹은 병소를 외과적으로 절개하는 제거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뇌에 직접적인 외과적 수술이 가해지는 만큼 매우 난이도가 높고 환자 및 의료진의 부담이 크다. 게다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전후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방법이 최소침습방법인 미주신경자극술이다. 미주신경자극술은 뇌신경 중 하나인 10번 뇌신경(미주신경)에 전극을 삽입해 뇌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뇌파를 억제하거나 교정하는 치료방법이다.

체내에 설치된 미주신경자극기는 직접적으로 뇌전증 유발 병소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뇌전증을 호전시키는 기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뇌에서 나오는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유발 ▲뇌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전증 예방 ▲뇌전증을 유발하는 뇌파에 대한 동기화를 통한 억제 등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주신경자극술은 부작용이 적은 효과적인 뇌전증 치료방법이다. 시술받은 환자의 5~60% 정도에서 증상이 개선됐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연하장애(삼킴 장애)나 쉼 목소리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

미주신경자극술은 최소침습적으로 이뤄져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 시술은 우선 왼쪽 목을 5cm 정도 절개한 후 목혈관신경집(carotid sheath)을 분리해 그 안에 미주신경을 박리한 뒤 전극을 감아 이뤄진다. 이후 가슴에 전류발생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이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로 환자에게 맞는 최적화된 전류 세기를 설정할 수 있다. 환자의 뇌전증 증상 빈도를 살펴보고, 전류 크기를 조절해 맞춤 치료가 이뤄진다.

## 뇌전증도 조기 치료가 중요

뇌전증은 뇌전증 발작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혹은 1회만 발생해도 뇌에 병소가 발견되면 진단된다. 원인은

대뇌 신경세포들의 과흥분 상태가 신체 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며, 주로 뇌에 생긴 병리적 변화나 뇌손상의 병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뇌졸중 ▲선천기형 ▲두부 외상 ▲뇌염 ▲뇌종양 등으로 구분된다. 뇌종양 환자의 30%, 뇌졸중 환자의 2~10%에서 뇌전증이 발생한다. 또 의식 소실이나 뇌의 병적인 요인으로 인한 손상으로 3~20배에 가까운 위험도가 증가한다.

다만, 뇌전증 역시 질환 발병 후 방치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상이 발현될 때마다 대뇌 신경세포들의 손상이 심해지면서 증상의 빈도가 많아지거나 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증상 발현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뇌전증의 정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뇌전증을 완벽하게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지만 치료 기술이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뇌전증을 앓고 있다면 숙련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료분야

파킨슨, 뇌종양, 방사선수술, 두부외상, 소아신경

## 약력

신경외과 전문의 취득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취득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정회원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성 난청을 치료하는 인공와우 수술



가천대길병원 이비인후과 **선우웅상** 교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9년 7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섰다. 2017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2년 만이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에 달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또 의료 기술의 발달로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8세이며, 2019년 행정자치부의 조사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19,876명으로 집계되어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노인성 난청은 환자는 65~75세가 25~40%, 75세 이상이 38~70%에 이를 만큼 고령화 돼 가는 추세다. 국내에서만 170만 명 이상의 노인성 난청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력의 감소는 40대 초반부터 시작될 수 있으나, 청력 감소가 생겨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때는 50,60세이고, 60세가 넘어가면 되면 질병, 외상, 퇴행성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저주파 영역도 떨어지게 되어 말소리뿐 아니라 소리의 감지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말 지각 저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치매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하지만 이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현상으로 여기고 치료하기를 체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청기 사용률이 18% 정도 밖에 안 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준비가 필요하다.

양측 청력이 70데시벨 이상의 고도난청으로 진행되면 보청기로도 청력을 회복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귀 속에 전극을 이식하여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고려하게 된다. 노인 난청 환자에서 양측 청력이 70데시벨 이상의,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보청기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여도 변별력이 낮아 말 지각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문장 언어평가 50% 이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전신 상태가 전신마취나 수술에 금기가 될 내과적 문제

가 없다면, 인공와우이식술은 1~2시간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어서 고도난청 이상의 노인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고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볼 수 있다.

연령만으로 인공와우이식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고령의 인공와우 환자들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젊은 성인 환자와 비슷하게 낮았다. 또 인공와우 이식 후 말 지각 및 실용적인 듣기 능력 모두에서 젊은 성인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성인 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노인 환자들은 중추의 퇴화현상으로 인한 언어인지나 이해 능력의 저하로 인해 수술 후 청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소통 능력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젊은 성인과는 차별된 꾸준한 상담과 재활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는 곳 근처에서 꾸준한 청력 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수술을 받아야 환자 각각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다.

노인성 난청 환자에서 인공와우이식술은 단순히 듣기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넘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이는 노인 인구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인 통합으로 연결되어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00세 시대 노인성 난청의 치료방법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진료분야**

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안면마비, 보청기클리닉

**약 력**

서울대 의대  
대한 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  
대한 이과학회 정회원  
대한 청각학회 평생회원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Harvard Medical School) 연수



## 청진기에 스민 박아서정신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남들이 못하는 아주 작은 일로 큰 것을 창조합니다.

중국의 고전 삼자경(三字經)에는 황향(黃香)이 아홉 살 때 부모님의 잠자리를 자기 몸으로 덮었다는 고사가 나옵니다.

겨울 밤 부모님이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 선뜩한 한기를 느끼시지 않도록 미리 이부자리를 자기 몸으로 덮었다는 것이지요.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한 일을 맡아하던 몸종 하나는 주군의 신발을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추운날 주군이 신발을 신을때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몸종은 다름 아닌 천하를 손에 넣고 한국까지 쳐들어 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지요

그런데 한국에도 이와 똑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환자들의 몸에 청진기를 댈때 선뜩한 찬기운을 느끼게 될까 보아 자기 가슴에 미리 청진기를 품고 있었다는 한 의사의 이야기 입니다.

그분은 바로 가천길재단의 이길여 이사장의 이야기 입니다.